

[홈](#) > [뉴스](#) > 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

저효율 백열전구 2013년까지 단계적 퇴출

2010년 07월 08일 (목) 10:47:34

서장원 기자 singgrun@ekn.kr

빛에너지는 5%에 불과하고 열 발산 비중이 95%에 이르는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생산판매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퇴출될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지난 6일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1층에서 가전기기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조정 및 신규품목 지정을 위한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절약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1년간의 연구 용역과 각 품목별 업체전문가협회 등이 참여한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사전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한 업체관계자의 높은 관심속에서 효율기준 강화 및 측정개선 방법 등의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은 가전기기의 효율기준 상향 조정, 가스온수기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규지정, 백열전구 퇴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먼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스온수기의 신규품목 지정과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등 5개 제품은 기술수준이 향상돼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이들 제품의 1등급 효율 기준을 17~67%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과 측정방법을 개선했다.

© 에너지경제신문(<http://www.ekn.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인쇄하기](#) [창닫기](#)